

16

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

마 18:21~35

찬송가 349장 (나 주의 도움 받고자) 찬양 155장 (전부)

오늘 배울



1.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음을 압니다.
2.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음을 압니다.



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
 주인이 노하여 그 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
 으로 형제를 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
 (마 18:33~35)



을 마음판에 새기기 (암송)

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 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(마 18:21~22)

Then Peter came to Him and said, "Lord, how often shall my brother sin against me, and I forgive him? Up to seven times?" Jesus said to him, "I do not say to you, up to seven times, but up to seventy times seven. (Mt 18:21 ~22)

-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.
- 2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몇 번을 용서하라는 것인가요?



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

- 1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'일만 달란트'와 '백 데나리온'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고 그 의미를 알아봅시다.
(일만 달란트: 6,000 데나리온, 1 데나리온: 일꾼의 하루 품삯으로 약 10만원 정도)

구분	현재의 금액	의미
일만 달란트		
일백 데나리온		

2

'일만 달란트 빚진 자'가 '백 데나리온 빚진 자'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일까요?

3

최근에 나의 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상황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(용서하지 못한 이유, 상대방의 반응, 나의 마음 상태 등).

4

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 봅시다(마 18:35, 엡 4:32).



을 삶에 적용하기

오늘의 말씀
(말씀 쓰기)

오늘의 기도
(감사 / 회개 / 간구)

1

롬 13:1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.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.

2

롬 14:15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.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.

화

고전 16:14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.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.

↑

고후 2:8

↓

엡 5:2

↓

벧전 1:22

↓

벧후 1:7



바로, 당신입니다

터키 군인이 아르메니아인의 기독교 신자의 집에 들어가서 남자를 찢어 죽였습니다. 그때 옆에 있던 누이는 간호사였는데 다행히 피하여 살아났습니다. 이 일이 지나고 수개월 후에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이 병원에 들어왔는데 치료중에 가만히 얼굴을 살펴보니 다름 아닌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. 간호사는 ‘내 오빠를 죽인 원수인데, 어떻게 할까?’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. 그러나 곧 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’는 결론을 얻고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.

시간이 지나자 군인은 회복되었고 정신을 차린 후 간호사를 보니 자기가 죽이려 했던 여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. 두려운 마음이 생긴 군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.

“당신 오빠가 몇 달 전에 죽은 일이 있습니까?”

“예, 그렇습니다.”

“그러면 범인이 누구인지 압니까?”

“네, 그건 바로... 당신입니다.”

이 말에 군인은 더욱 놀라며 물었습니다.

“그런데 당신은 나를 알고도 이렇게 친절하게 치료해 주었습니까?”

“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비록 오빠를 죽인 원수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돌보는 것입니다.”

그 군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으며, “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.”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.



질문 있어요~



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무엇입니까?

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,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영원한 천국을 기점으로 주시게 위함입니다.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우리의 말이나 표현으로는 가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.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자 과학자이시므로 천국은 과학과 예술의 극치일 것입니다.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.

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지만 만약 구원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부끄럽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의 기준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상급과 영광입니다.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,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받았지만 상급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.

그러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(고후 5:9~10)

여기서의 선악은 도덕적인 것 이상입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, 성령을 따라 산 것,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, 비록 내게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 편을 택하면서 순종하는 것 등이 선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,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고,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살려 하는 것 등은 모두 악입니다.

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.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데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.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.